

[기출의 파급효과 국어 주간지]
Run-up (문학)
- 4주차 -

제작 : 박영호, 유정혁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AB [41~43]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짧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짧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고은, 「성묘」 -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뎅빛
뿔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뿔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
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
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뿔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뿔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
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뿔마루에까지

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
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뿔마루」 -

* 눈 안에 선지가 생길 : 눈에 핏발이 설.

* 서도 :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②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 저 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 ③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뒤안’은 화자가 뒷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거울’은 손때가 뒷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뒷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④ 뒷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뒷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성묘」에서 ‘이 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나 봅시다.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시간적 배경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해요. 어떤 시간적 배경에 어떻게 의미가 변하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화자는 아버지를 부르며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말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돌며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이 땅’은 과거의 땅이겠죠?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서 떠돌던 땅을 의미해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과거를 회상하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남북의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소금을 파셨다고 해요. 때로는 서도의 노래를, 남쪽에서는 밀양 아리랑을 부르실 정도로 모든 지역에 대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지역을 떠돌면서 소금을 파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월은 멈추지 않은 물이기에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그것을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땅’이 나와요. 여기서의 ‘이 땅’은 현재입니다.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현재에 ‘이 땅’에 남지 못했어요.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고은, 「성묘」 -
 * 눈 안에 선지가 생길 : 눈에 핏발이 설.
 * 서도 :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남북통일이 되면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당연히 미래겠죠? 미래에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서 소금 장수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소금이여”라는 소금을 파는 소리를 남북 모두에게 듣게 하라고 하네요.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 남북통일이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딧빔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 묻어 있을 것
 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닳아어져 어
 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외할머니의 집 뒤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집 뒤편에는 먹오딧빔 툇마루가 깔려 있어요. 이 툇마루에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딸들의 손때, 그리고 어머니의 처녀 때 손때가 묻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손때가 너무 묻어 한 개의 거울로 보일 정도라고도 해요.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툇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

나는 어머니에게 혼나서 갈 곳이 없을 때는 이 외할머니네 뒷마루로 갔다고 해요. 외할머니는 뒷마루에 온 나에게 오디 열매를 나누어주며 친절히 대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나를 혼낼 수도 없기에 더욱 안심이 되고 편안한 장소가 되겠네요. 뒷마루에는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친다고 해요. 외할머니와 나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과거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작품입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유사한 시구를 변주한 것은 둘 다 없죠?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가)에서는 부정적 현실은 나타나지만, 그것을 관조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나) 또한 관조적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가)에서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나)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해 동화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가)에서는 붉은 물빛 등의 표현을, (나)에서는 먹오뎅빛 뒷마루 등의 시어를 활용해 색감을 드러내고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옳습니다.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 역설적 표현은 두 작품 모두 찾아볼 수 없어요.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

— < 보 기 —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제와 완전히 어긋난 선지입니다.

㉡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해서 일제 시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지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가업을 잇겠다는 내용이 아니죠?

㉤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완전히 옳은 설명이에요. 자신의 바람, 즉 남북통일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집 뒤안'은 화자가 뒷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화자는 어릴 적 외할머니를 회상하고 있는데 그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다? 오히려 화자의 어릴 적 시절과 연결해주는 공간이죠?

㉡ '거울'은 손때가 뒷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많은 손때가 묻어 거울처럼 반질반질해졌다고 했어요.

㉢ 뒷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외할머니가 주던 오디와 뒷마루의 분위기는 화자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 뒷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외할머니는 내가 혼나고 뒷마루로 오면 '오디 열매'를 주곤 했어요. 외할머니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 뒷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 뒷마루에는 내 얼굴과 외할머니의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어요. 가까이 있고, 시적 상황에서도 외할머니는 나에게 애정을 주고 있습니다. 친밀하다고 볼 수 있어요.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11B [43~45]

- 최두석, 「낡은 집」 -

* 예제로 : 여기저기로.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꿰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쟈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
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
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름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
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
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각지
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
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먼저 시 제목이 고향 앞에서입니다. 그럼 당연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내음새, 강바람 등의 모습은 고향에 대한 묘사일 거예요. 고향에 대한 묘사로 시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하루종일 나룻가에서 있다가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이라고 해요. 지금 화자는 나룻가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 근처의 나룻가라고 추측해볼 수 있죠. 거기서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거라고 해요. 고향에 대한 반가움, 설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꿰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화자는 고향에서 가까운 주막에 들릅니다. 아직 고향에 완전히 가지는 않았습디다. 거기서 누구와 함께 지난날을 이야기하라며 슬퍼하고 있어요. 주인집 늙은이도 공연히 눈물을 지우고 있습니다.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른 것을 보아하니 고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네요.

간간이 잦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아직도 산기슭에는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분다고 해요. 산기슭을 고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고향에는 아직도 조상들이 있고 설레는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설렘 정도로

봐야겠죠?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
 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장꾼들보고 오가는 길에 보셨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고향의 모습을 뵈냐고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 모습들을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고향에 대한 묘사를 하는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륨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 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남은 집」 -

* 예제로 : 여기저기로.

긴 산문시예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귀향이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향 집의 모습이 매우 어설피하면서 고향을 낯설고 어색해합니다.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는 살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반갑게 나를 맞아 주는 모습이 가족애를 느끼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예요.

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가)에서 낯선 행인의 손을 잡으면 따뜻할 것이라고 하고, (나)에서는 익숙했던 고향 집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고 있어요.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각박한 인심에 대한 좌절? 그런 내용도 없죠.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다고 보기 애매해요. 본다고 해도,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내용은 없어요.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 (가)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라고 본다고 해도, (나)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변화를 희망한다고는 볼 수 없죠.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① ㉠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고 하며 얼음이 풀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② ㉡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하며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③ ㉢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고향에 가지 못하는 화자의 설움이 장꾼들의 설움이 아니에요. 주체가 바뀌었죠.

④ ㉣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자신의 부모와 여동생을 제3자처럼 지칭하고 있어요.

⑤ ㉤ : 쓸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아무도 없고 섣뜩하다고 묘사하면서 힘든 고향의 모습에 대한 슬픈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

— <보 기>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고향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위의 두 작품 다 고향에 대한 이야기였죠? 고향은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되고,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하거나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성된다고 해요. (가)에서는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서 어색함을 느끼고 있어요. 둘 다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되었어요. 지문의 내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 봅시다!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가)에서 화자는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화자는 고향 앞에는 왔지만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보기>의 내용과 연결해보면 고향의 모습이 변했거나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화자의 귀향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자가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현실을 따뜻하게 만들어 귀향을 완성한다는 내용은 말이 안 되죠? 귀향은 미완으로 남을 뿐이지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② (가)에서 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화자는 고향을 평화롭게 인식하고 있어요.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맞죠? 가족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가족들이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귀향한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어요. 가족애를 느낄 수 있죠.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 맞죠? (가)의 화자는 고향을 앞에 두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화자는 고향에 도착은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죠. 귀향의 완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